포괄임금제의 그늘?

직장인 4명 중 1명 "초과 근로 수당 못 받아"

"초과근무수당 규정 잘 지켜져" 공공기관 80% vs 中企 43%

10명 중 2명은 "유명무실한 제도라 정작 신청도 못해 봤다"

주 52시간제도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여전히 초과근로는 자행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수당지급은 원활치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1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실시한 '초과근무수당 제도'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의 절반 수준인 51%가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나머지 49%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각각 답했다.

국내 기업 10곳 중 5곳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기업 유형에 따라 살펴보니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가장 잘 지켜지는 곳은 단연 공공기관(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62%)이나 ▲중견기업(61%)도 상대적으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중소기업(43%)은 공공기관과는 무려 37%P의 격차를 벌렸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고정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악용 병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마련된 중소기업이 전체의 43%에 그친다는 것은 초과 근무를 해도 이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한다.

한편, 초과근무를 해도 그 수급 과정에서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수급/신청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자,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유명무실한 제도라 정작 신청도 못해 봤다(20%)'고 답했다. 그 외에도 ▲'회사 내외부적으로 진통 끝에 어렵게 수급함'(10%), ▲'신청만 하고 수급 못함'(4%) 등 신청과 수급과정에서 고충을 겪은 이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총 24%, 비율로는 4명 중 1명 꼴로 초과근로를 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별 잡음 없이 무사히 수급'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66%이었다. 이들이 지난 1년 간 수급한 초과근무수당 총액의 평균은 278만 4000원으로 집계되었다.

끝으로, 직장인들의 상당 수는 '초과 근무 시 이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78%)'라고 생각해 초과근무수당 제도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초과근무는 지양해야 한다(18%)'거나, ▲'편법으로 초과수당을 챙겨가는 이들이 있기에 수당 지급 반대(2%)'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는 '초과근무 자체를 지양하지', '초과근무 지급체계를 개선하지', '성실히 일한 근무자라면 무조건 보상받아야 함' 등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뉴시스

제주항공, 광주은행과 '여행 스케치' 적금 출시

"지역 대표기업과 협업해 다양한 편익 제공"

제주항공은 무안국제공항 취항 1주년을 맞아 지역 밀착 마케팅을 강화한다.

제주항공은 17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에서 송종욱 광주은행 은행장과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행스케치 제주항공 적금' 출시 등 마케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24일 광주은행이 출시하는 여행스케치 제주항공 적금은 기본금리 1.8%로 매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적립할 수 있다.

또한 ▲제주항공 회원 대상 0.5% 우대금리 ▲광주카드로 해외에서 이용한 금액과 제주항공 항공권 구매시 20만원당 0.1%우대하며 최대 3.4%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항공은 여행스케치 제주항공 적금 출시에 맞춰 적금에 가입하면 리프레시포인트 5000포인트를 제공하고, 적금 가입 후 광주카드로 제주항공 국제선 왕복항공권을 결제하면 최대 3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지역의 관심과 성원으로 취항 1년만에 무안국제공항에 활력을 넣고 제주항공 역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며 "광주와 전남지역 항공교통 이용자에게 다양한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월 129만원에 기아차 'K9'·'스팅어'·'카니발' 바꿔탄다

기아자동차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 '기아 플렉스 프리미엄'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기아 플렉스 프리미엄' 공유서비스 선보여

앱 통해 신청···예약·배송·반납 한 번에 진행

기아 플렉스 프리미엄은 월 단위 요금 129만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하고 'K9', '스팅어', '카니발 하이리무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교체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추가로 '니로EV'를 월 1회 72시간 대여할 수 있으며 기아차는 이날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아 플렉스 프리미엄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약-결제-예약-배송-반납의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철저한 점검 과정을 통해 관리되는 차량을 제공받기 때문에 정비와 소모품 관리에 따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보험료·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비용도 별도로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차량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3일 전까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차량을 선택해 예약하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차량을 탁송 받을 수 있다.

기아 플렉스 프리미엄 3개월 묶음 요금제 이용 시 월 5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이용 후 60일 이내 K9이나 스팅어 신차를 출고하는 고객은 3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50명 한정으로 기아 플렉스 가입자를 모집하며 만 26세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하고 본인 명의의 개인·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한편 기아차는 고급차 라인업으로 구성된 기아 플렉스 프리미엄 외에도 향후 차종을 확대하고 가격대를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구성의 패키지를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이른 더위에 소형 냉방 가전 인기 행진

이른 더위에 홈쇼핑에서 소형 냉방가전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CJ오쇼핑에 따르면 이달(1~11일) 들어 냉방가전 주문금액이 전년 동기보다 240% 증가했다. 특히 지난 3일 방송에서 선보인 신일 에어서큘레이터는 방송 1시간 동안 1700대가 팔려 실적 목표치의 150%를 넘겼다.

앞서 5월에 선보인 보국전자의 '제로닷' 브랜드에서는 에어서큘레이터, DC팬 등이 한달 만에 1만 1000대 이상 팔렸다.

CJ오쇼핑은 소형 냉방가전 성수기가 앞당겨졌다고 판단, 해당제품의 판매 방송 편성 시간을 확대하고 단독상품 판매도 주력할 방침이다.

CJ ENM 오쇼핑부문 관계자는 "올 여름도 작년만큼 더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찌감치 냉방가전 준비에 나선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날씨에 맞춰 계절가전 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가성비를 만족하는 단독 제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무안양파 판로개척 위해 우체국이 나선다

우체국 쇼핑, 11번가 통해 5kg 1상자 4900원 특가 판매

전남지방우정청(청장 홍만표)은 최근 생산량 과잉에 따른 양파 가격폭락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무안지역 농가를 위해 두 번째 판로개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지방우정청 전자상거래팀은 지난 3일에 전자상거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산지폐기를 앞둔 무안 양파 3만7천건을 판매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17일부터 시작되며, 우체국쇼핑(https://mall.epost.go.kr)과 11번가(www.11st.co.kr)를 통해 햇양파 5kg(대) 1상자를 균일가 4,9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우정청 전자상거래팀 담당자는 "이번 판매활동으로 양파 시장가격 안정화 및 수요촉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